

복날엔 전복... '완도군이숍' 다양한 이벤트 진행



완도군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군이숍'이 지난 6월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복날엔 전복'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 12일까지 전복 전 상품 30% 할인·무료 배송 이벤트 기간 중 하루에 1장씩 할인 쿠폰 사용 확대

'복날엔 전복' 이벤트는 복날을 앞두고 면역력과 원기 회복에 좋은 완도 전복을 먹고 무더위를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벤트는 8월 12일까지 전복 구입 시 30% 할인과 무료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 할인 쿠폰은 당초에는 이벤트 기간 중 회원 1인 당 1장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8월 12일까지 하루에 1장씩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신규 회원 가입 시 적립금 1천 원, 제품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제품 당 1회 최대 500원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향후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모든 이벤트는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완도군은 2014년부터 매년 삼복 즈음 소비자들에게 전복 먹기를 권장하며 '복날엔 전복, 전복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7월 7일부터 이틀 간 세종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에서는 활 전복을 최대 18% 할인 판매하고, 전복 구입 시 2~3마리를 무료로 증정한다. 초복(16일)을 앞두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들과 소비 촉진 행사 및 대도시권

직거래 장터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청정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완도산 전복은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특히 전복 내장 추출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며, 세계적 권위의 해양 의학 분야 학술지 마린 드럭스(Marine Drugs) 최신호에 실렸다. 신우철 군수는 "1일(日) 1복(鮑) 하면 1월(月) 변신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루에 전복을 한 개씩 먹으면 한 달 후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를 완도 전복을 먹으며 이겨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 장동면, 그리운 고향 맛은 조양리 향우회 열려

장흥군 장동면 조양리에서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향우들의 특별한 고향방문 행사가 열렸다. 조양리 향우회(회장 정은식)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서울, 부산, 광주·전남 등 전국에서 170여명의 향우들이 참석했다. 이날 향우회에는 김성 장흥군수, 유금렬 장흥군의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향우들을 만났다. 조양리 향우들은 추억이 있는 관호 선들보, 양곡저수지 등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어릴 적을 회상하며 답소를 나누었다. 저녁 시간에는 '조양인의 놀이 한마당'을 열고 색소폰 연주와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정은식 향우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양리 주민들과 향우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67억 원 확보

완도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에 '금빛안(安)권역 행복환 살터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사업은 주민들의 협력 하에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사업 계획을 세웠으며, '문답할 천년숲 아름다운 살터, 금빛안권역'이라는 주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업 대상지는 금당면 차우마을로 봉동, 울포마을을 비롯한 7개 마을에도 사업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7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섬마을 탄소 저감 에너지 공동 공급망 구축, 공중목욕탕과 경로복지센터 리모델링, 금빛안 커뮤니티 공간 정비, 금빛안 안전한 생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고, 지역 리더 및 주민 교육, 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민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여성 리더와 함께 하는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진군, 여성 대학생·군민참여단 70여 명 참여...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진군은 지난달 2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여성 대학생 및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나의 삶에 성인지 감수성 더하기'라는 주제로 젠더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는 강진군을 대표하는 여성리더인 여성대학생과 군민참여단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남성폭력상담소 이수아 소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내용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문제, 여성을 강요하는 자극적인 뉴스 제목들,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2차 피해, 어린이를 대하는 어

른들의 방식 등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로 진행됐다. 군민참여단 김모씨는 "강의로 인해 일상생활 속 불평등을 알고 나부터 변화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유미자 부군수는 "강진군 여성리더들이 향상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군 정책에 대하여 다양하게 피드백해주시리라", "강진군이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향 제시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구름숲아토리(주) 업무협약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구름숲아토리(주)가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신 건강 증진과 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추진 ▲정신건강 문화 확산과 직업 체험 기회 제공 등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협력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름숲아토리(주)는 사회적 기업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내 소외계층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커피 클래스, 진도 민속문화체험 활동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발전과 재능 발굴에 힘쓰고 있다. 최근 구름숲아토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커피 내리기 체험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꿀벌 사육 농가에 1억1400만원 방역약품 지원

해남군은 지난 월동기 꿀벌 실종 피해를 본 꿀벌 사육 농가에 총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투입해 방역약품을 지원했다. 방역약품은 꿀벌 응애 구제제 3,024개, 꿀벌 노제마방 예방약 806개, 남충봉아부패방 예방약 1,146개, 꿀벌면역증강제 3,282개 등이다. 해남군에서는 올 1월부터 갑작스럽게 꿀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 양봉농가 92농가, 2만3,000여군 중 81농가 약 1만2,000여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해 지난 4월 긴급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편성, 꿀벌 농가의 봉군을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비를 지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에서 피해 원인 조사 중으로, 지난 합동조사 결과에서는 전년도 가을 높은 일교차로 인한 봉군 약화와 월동 전 응애 방제 미흡으로 인해 약군으로 월동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국립농업과학원의 보고가 있었다. 꿀벌은 봉군이라는 기능적 단위로 군집생활을 하는 곤충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 치료보다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